

여성전문대졸업생의 대학생활과 직장만족도

- 구직활동의 조절효과 -

김 현 동¹⁾

요 약

본 연구는 교육고용패널자료를 대상으로 전문대생의 대학생활과 직장만족도의 연계를 분석하였다. 전문대생의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직장에 대한 만족도는 높아졌다. 구직활동에 대한 노력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엇갈리게 나타났다. 취업 및 창업과 관련된 교육훈련 개수가 늘어날수록 직장과 업무에 대한 만족도는 높아지고 있다. 또한, 대학생활만족도와 대학성적이 직장만족도로 연계되는 과정에 영어교육유무는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 구직활동이 양면의 가치를 띠고 있어도 대체적으로 전문대생의 직장만족도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전문대학은 대학교와 비교하여 사회의 관심을 덜 받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겪고 있다. 전문대학생의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도와 구직활동은 이들이 졸업 후 직장생활을 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사회는 전문대학의 교육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겠다.

주제어: 전문대학생, 대학생활만족도, 구직활동, 직장만족도

I. 서 론

취업자 규모는 매년 감소되고 있으며 청년실업률이 2008년 7.2% 2009년 7.6%로 전체실업률의 약 두 배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듯 청년실업의 심각성이 부각되면서 한국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의제로 떠올랐다. 한국정부는 청년취업률을 높이기 위하여 직업훈련, 취업알선프로그램, 창업장려, 인턴기회 확대 등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청년취업난을 타개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기가 용이하지 않다.

전문대학은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며 고등직업교육을 통한 기술인력을 배출해내는 고등교육기관이다. 전문대학은 4년제 대학과 비교하여 경제적 부담이 적으면서 고등교육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 특히 청년실업의 원인으로 기업에서 원하는 인력과 노동시장에서 공급되는 인력 간의 불일치(mismatching)을 들고 있다. 전문대학은 실용위주의 교육을 실시하여 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배출하므로 산업경제에서 응용학문이 필요한 분야에 인적자원을 확충시킬 수 있다(박일근, 2008). 이렇듯 전문대학은 인력수급의 불일치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용한 교육기관이다. 그럼에도 여러 면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 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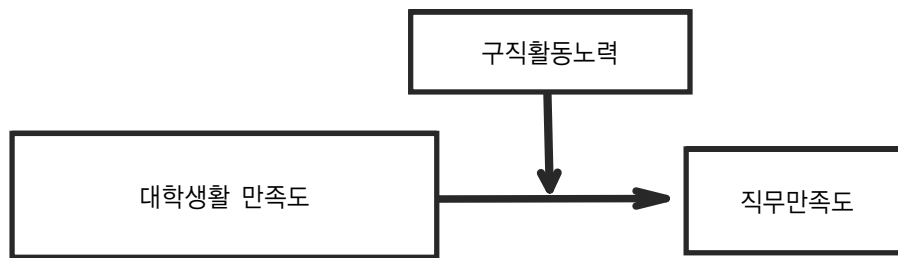
1) 동국대학교 경영대학 조교수 (kim1415@dongguk.edu)

대졸과 대졸의 임금격차는 상당하며 전문대졸의 임금수준은 고졸과 유사하다(대졸이상 월 평균임금 280.7만원, 전문대졸 184.3만원, 고졸 178만원). 전문대졸과 대졸의 임금격차는 OECD선진국과 비교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다. 전문대생의 대부분이 임금이 낮은 산업에 분포되어 있으며 대졸자의 14.1%가 대기업에 취직하는 반면 전문대졸업생은 7.7%가 대기업에 취직하여 대졸자와 전문대졸업자의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국가기관 또한 전문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미흡하여 일반대학 예산은 1조 4,893억원인데 반하여 전문대는 2,724억원만이 배정되어 전문대학에 대한 차별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김주성, 한국일보).

현재 한국사회에서 전문대학은 산업의 뼈대를 이루는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배출하여 산업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4년제 대학과 비교하여 뚜렷하게 차별받는 현실을 타개하고자 전문대학생들의 대학생활이 이들이 취업 후 직장생활이 어떻게 연계되는 지 조사해보고자 한다.

또한, 최근 취업난이 가중되면서 대학생들은 다각도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 영어실력을 늘리고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자원하여 각종 교육훈련 및 자격증 획득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학생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자 구직활동을 열심히 한다면 양질의 일자리를 구할 수 있으므로 직장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 특히, 전문대학은 산업체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응용학문으로 교육과정이 구성되어 있다. 전문대학은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대학생활에서 구직활동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현 연구는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전문대학생들이 구직활동을 열심히 한다면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어서 보다 만족스런 직장생활을 할 수 있다고 추정해본다.

본 연구는 전문대학생들의 대학생활과 직장생활의 연계를 분석하여 전문대생들에 있어서 대학생활의 중요성을 조사해보고자 한다. 또한, 전문대학의 목적이 현장맞춤형의 인재를 양성하여 산업에 배출하는 데 주목하여 전문대생의 구직활동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전문대생이 전체 대학생의 1/4에 이르며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을 배출하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현실적으로 상당한 차별을 받고 있다. 전문대학의 위상을 제대로 정립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 연구는 교육고용패널이 종단적으로 조사된 점에 주목하여 독립변수인 대학생활만족도와 조절변수인 취업준비상태는 2008년과 2009년에 조사된 자료를 종속변수인 직무만족도는 2009년에 조사된 자료를 연계하여 연구모형을 검증하였다. 종단적 연구는 횡단연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어서 전문대생의 대학생활과 취업에 대하여 보다 타당성 있는 분석결과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현 연구는 전문대학생들의 대학생활과 구직활동노력을 종단적 모형으로 분석하여 전문대학교이 사회에서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정립하는 계기를 만들어내고자 한다.



[그림 1] 연구모형

II. 이론적 배경

1. 대학생활과 직무만족도

직무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다각도로 전개되어 왔다. 직무만족도를 결정짓는 요인으로는 월급액수, 직장의 근무환경, 직장동료와의 대인관계 등 직장에서부터 개인성격 그리고 일상 생활에서 감정의 변화 등 다양하게 걸쳐져 있다. 그럼에도 대학생활이 직장과 어떻게 연계 되는 지 검증한 연구는 드물다. 다만, 학점에 따라 취업률과 취업의 질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 조사한 연구만이 있을 따름이다. 미국 혹은 유럽 등의 서구사회에서 대학교의 학점은 취업률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대학교의 학점이 취업률과 취업의 질을 결정짓는다고 검증되어 한국의 대학생활과 취업은 서구사회와는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정태영·이기엽, 2005, 황여정·백병부, 2005). 특히, 현 연구의 표본인 전문대학생들은 실무위주의 교육을 받아 응용력을 갖춰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할 역량을 갖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대학생들의 학업과 직장생활은 밀접하게 연계되어야 한다. 이렇듯 한국의 전문대학생들의 학업과 취업은 긴밀하게 연계되어야 하므로 보다 만족스런 직장생활을 위한 대학생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현 연구는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며 대학성적이 우수할수록 직장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본다. 김병숙·박현주(2007)는 전문대학생의 직업가치관에 따라 직업정보를 탐색하는 행동이 달라진다고 검증되었다. 오성욱과 이승구(2009) 또한 대학생들이 지니는 직업가치에 따라 직장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달라진다. 오성욱·이승구(2009)에서 대학생이 직업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는 내재적 가치관을 강하게 지니면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나타났다. 이렇듯 대학생들이 평소에 지니는 가치와 견해에 따라 직장에 대한 태도는 유의미하게 달라진다. 박재민·엄미정·김윤영(2010)은 전공과 일치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이 높아진다고 조사하였다. 박재민 외(2010)에서는 근로자들의 경력에 있어서 대학교 전공의 중요성을 검증하여 대학생활에 따라 직장생활이 달라질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이렇듯 대학생활은 직장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되므로 대학생활의 만족도가 높은 대

학생들의 직장생활에 대한 만족도 또한 높아질 것이다. 정태영·이기엽(2005) 그리고 황여정·백병부(2005)에서 대학교에서의 성적은 취업률을 높이며 양질의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한다. 대학생활의 만족도와 대학교에서의 성적은 직장생활의 만족도와 유의미하게 연계된다.

가설 1: 전문대학생의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직장생활에 대한 만족도와 정(+)¹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1-2: 전문대학생의 대학성적은 직장생활에 대한 만족도와 정(+)¹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2. 구직활동의 영향력

구직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될수록 취업률이 높아지며 양질의 일자리를 구할 확률 또한 높아지게 된다. 황여정과 백병부(2005)는 취업관련 대학의 지원 활동, 졸업 전 취업목표 설정 여부, 어학연수에 지출한 비용 등이 대기업 정규직 취업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검증되었다. 특히, 취업을 위하여 사교육을 받는 것이 대기업 취업에 상당한 도움을 준다고 조사되어 구직활동에 대한 투자가 양질의 일자리로 연계됨을 입증하였다(황여정·백병부, 2005). 박천수(2009; 2010)는 어학연수와 자격증이 정규직 취업가능성을 높이며 구직기간을 단축시킨다고 검증하여 자격증의 중요성을 입증하였다. 이기종과 김은주(2006)는 외국어능력 특히, 영어능력이 취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검증하였으며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채용 시 영어능력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다. 이렇듯 대학생들이 구직활동을 열심히 하면 보다 나은 양질의 일자리에 취직될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박성재·반정호, 2006).

전문대학은 현장맞춤형 실무지향 교육을 하고 있으므로 전문대학생의 학업과 직장은 대학생들과 비교하여 보다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전문대학생들의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성적이 우수하면 양질의 직장을 얻을 수 있어 직장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다. 대학생들이 취업준비에 대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직장에서도 요구되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으며 특히 입사시험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대학생활과 구직활동이 연계되어 직장생활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성한다. 대학생활을 충실하게 하여 성적이 우수하고 만족도가 높아도 구직활동이 부족하다면 양질의 일자리를 얻기 힘들어 직장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대학생활에서 긍정적인 행동과 태도를 지녀도 구직활동에 대한 준비가 잘 이루어져야 직장만족도가 높은 수준에 다다르게 된다. 따라서, 대학생활을 열심히 한 전문대학생들은 구직활동 또한 열심히 하여야 좋은 직장을 갖아서 직장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게 된다.

가설 2-1: 전문대생의 취업준비상태에 따라 대학생활의 만족도와 직장생활의 만족도는 유의미하게 달라질 것이다.

가설 2-2: 전문대생의 취업준비상태에 따라 대학성적과 직장생활의 만족도는 유의미하게 달라질 것이다.

Ⅲ. 연구 방법

1. 자료수집 절차와 표본

현 연구는 교육고용패널조사를 활용하여 연구모형을 종단 연구하고자 한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2004년에 중학교 3학년,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전문계고 3학년을 지역별로 학생비율을 층화추출하여 2009년 제 6차조사에 이르기까지 추적조사하여왔다. 현 연구는 2009년 제 6차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취업한 전문대생만을 표본으로 추렸다. 남성의 경우 군복무가 겹쳐서 현재 취직된 전문대 졸업생의 숫자가 매우 적었다. 따라서 여자전문대 졸업생 중에서 현재 취업중인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한 결과 표본 숫자가 123명으로 집계되었다. 2009년은 2004년에 고등학생이 대학생활을 거쳐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는 시점으로서 좀 이른 감이 있는 데다 군 복무등의 예상하지 못한 변수로 표본 숫자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2. 측정 변수의 조작적 정의

가. 독립변수

1) 학교생활 만족도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다음과 같은 아홉 항목으로 구성되어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되어 평균 값으로 계산하였다: 1) '우리 학과(계열·학부·전공)는 학생들 간의 관계가 좋다'; 2) '나는 이 학교에 다니는 것이 자랑스럽다'; 3) '나는 우리 학과(계열·학부·전공)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4)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의 고민에 대한 상담이 잘 이루어진다'; 5) '우리 학교에서는 진로에 대한 정보 제공과 상담이 잘 이루어진다'; 6) '우리 학교는 학교 운영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7) '우리 학교는 교과목 선택에 대하여 교수님이 적절히 지도한다'; 8) '우리 학교는 교육과정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9) '우리 학교에서는 성적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진다'. 교육고용패널 4,5년차 자료(2007년 6월-2009년 6월)자료에서 보고된 대학생활의 만족도를 활용하였다.

2) 학교성적

교육고용패널 4,5년차 자료(2007년 6월-2009년 6월)에 보고된 학교성적으로 조작하였다. 현재의 학점에서 만점을 나누어 백분율로 계산된 값을 평균하여 학교성적으로 만들었다.

나. 조절변수

1) 취업준비경험

취업준비경험은 취업준비상태를 ‘예’ ‘아니오’로 설문한 문항을 더미변수로 바꾸어 총합하여 조작하였다. 취업준비경험은 1)직업훈련(사설학원 포함) 참여; 2)자격증 취득; 3)취업정보검색; 4)친인척, 선배, 친구 등에게 취업 부탁; 5) 교수(교사)에게 부탁하거나 학교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이용; 6) 일하고 싶은 곳을 방문하여 취업 부탁; 7) 면접훈련; 8) 직업적성.흥미검사; 9) 취업박람회 참여; 10) 구직정보를 인터넷에 올려 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종단연구의 이점을 살리기 위하여 교육고용패널 4,5년차 자료(2007년 6월-2009년 6월)자료를 활용하였다.

2) 취업/창업 대비한 교육훈련

학교 정규수업이나 영어, 제2외국어, 공무원시험 공부등을 제외하고 취업이나 창업, 직무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질문하였다. 2007년 6월부터 2009년 6월에 이르기까지 교육고용패널 4,5년차에 조사된 교육훈련 받은 개수를 총합하여 취업/창업에 대비한 교육훈련을 어느정도 받고 있는 지 조작하였다.

3) 영어교육유무

교육고용패널 4,5차년도 조사(2007년 6월-2009년 6월)에서 영어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지 설문하여 받은 적이 있으면 ‘1’ 받은 적이 없으면 ‘0’으로 조작하였다. 영어교육은 학원수강, 인터넷 동영상 강의, 개인(그룹)지도, 전화 영어등을 포함하고 있다.

4) 자격증 개수

다른 조절변수와 마찬가지로 자격증 또한 교육고용패널조사 4,5차년도 자료에서 자격증 획득한 개수를 총합하여 전문대 졸업 근로자들이 자격증을 어느정도 취득했는지 만들었다.

다. 종속변수와 통제변수

1) 종속변수

직장만족도는 두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 그룹은 현 직장에 대한 만족도를 설문조사하였다. 설문항목은 근무환경, 근무시간,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임금, 개인의 발전 가능성, 복지후생, 직장의 안정성으로 구성되었다. 두 번째 그룹은 자신의 전공과 교육수준과

비교하여 직무가 적합한지 질문하였다. 두 번째 직장만족도는 1)현재 직장에서 하고 있는 일이 전공과 잘 맞는지 2) 직장에서 요구하는 기술과 능력이 내 수준에 비하여 어느 정도인지 3) 직장에서 요구하는 교육수준이 내 수준에 비하여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세 문항으로 설문하였다. 직무만족도는 2009년에 조사된 교육고용패널 6차년도 조사를 활용하여 조사하였다.

2) 통제변수

통제변수는 전공, 학교 수도권 소재 여부 그리고 월 임금으로 구성되었다. 전공과 학교 수도권 소재 여부는 2007년 6월-2009년 6월에 교육고용패널 3,4년도에 조사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월 임금은 2009년에 조사된 교육고용패널 6차년도를 활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표본의 기술통계

가. 기술통계분석

〈표 1〉 전문대 졸업생의 대학생활과 직장만족도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인문사회계열	.219	.415
교육계열	.138	.346
자연공학계열	.187	.391
의약계열	.366	.483
예체능계열	.089	.286
학교소재지	.38	.488
임금	130.227만원	29.188만원
정규직유무	.38	.488
대학성적	.815	.101
대학만족도	3.228	.504
취업준비경험	2.626	2.222
취업/창업 대비한 교육훈련	.162	.502
영어교육유무	.366	.576
자격증 개수	.504	.793
직장만족도	3.368	.642
자신의 교육/기술수준과 비교한 직장만족도	3.119	.492

전문대 졸업생은 의약계열이 36.6%로 제일 많고 인문사회계열이 21.9%, 자연공학계열은 18.7%, 교육계열은 13.8%로 비율이 유사하며 예체능계열은 8.9%로 제일 적다. 학교소재지는 수도권이 38%이며 월 임금은 130만원 정도로 신규 전문대 졸업생 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추정된다. 대학성적은 100점 만점에 81.5점 그리고 대학만족도는 3.228로 대학성적과 만족도는 보통이상 수준이다.

취업준비경험은 약 2년동안 2-3프로그램 정도 참가하였으며 취업/창업 대비한 교육훈련에 참가한 전문대생은 약 10명 정도이다. 영어교육에 참가한 전문대생은 36.6%이며 자격증 취득에 참가한 전문대생 숫자는 32명 정도로 취업/창업에 대비한 교육훈련에 참가한 숫자 보다는 많다.

2009년 2월 졸업자가 27명 2008년 2월 2월 졸업자가 84명 2007년 2월 졸업자가 2명 그리고 2007년 2월 졸업자가 10명으로 집계되었다. 취업준비 경험은 30%이상인 취업정보검색 경험여부가 있으며 직업훈련경험여부와 취업박람회 경험여부를 제외하면 10%이상의 전문대 졸업생들이 대학생활에서 취업준비를 경험한 바가 있다. 취업정보 경로 1순위는 학교(교수, 교사, 게시판) 그리고 부모 또는 친척이며 취업 정보 경로 2순위는 부모 또는 친척 그리고 생활정보지로 나타났다.

취업/창업에 대비한 훈련에 참가한 학생들은 10명정도로 상당히 적은 숫자만이 취업/창업에 대비한 교육훈련에 참여하였다. 참여한 분야는 식품가공(제과, 제빵, 영양사), 컴퓨터 분야(프로그래밍, 컴퓨터 시스템), 서비스 분야(미용기술), 보건 의료분야(간호, 물리치료), 교육, 법률, 사회복지분야, 운전분야 등 다양하게 퍼져 있으나 참여경험이 있는 근로자의 숫자가 적다. 취업/창업 훈련의 절반이상은 사설학원에서 이수했으며 공공훈련기관, 대학내 훈련기관등에 소재해 있다. 자격증은 의료산업과 관련된 자격증(간호사, 물리치료사, 치과기사, 치과위생사)이 거의 절반 정도에 이르며 그 외에는 안경사, 영양사, 보육교사, 정보처리기사, 사무자동화기사, 인터넷 정보검색사, 컴퓨터활용사 등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임금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는 업종은 의료분야가 36%로 제일 많으며 제조업이 10%, 소매업과 숙박업이 약 16%, 교육서비스업이 11%, 운송업과 사업개발서비스업이 약 5%정도를 기록하며 금융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상당히 드물다. 절반에 이르는 40%의 근로자가 보건의료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며 24%의 근로자는 경영회계업무에 7% 정도의 근로자는 영업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정규직은 85.4%로 높은 수준이며 70%가 민간회사 23%가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다. 61%의 근로자가 100명이하의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으며 1,000명이상 사업장은 13%에 지나지 않아 전문대생의 대기업취업의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영어시험성적은 2008년도 5차교육고용패널에서만 조사되어 있는 데 단지 11명만이 TOEIC을 보았으며 최고점이 650점으로 전문대생들의 영어실력이 떨어진다. 교수면담은 1-4회가 각각 20명으로 보통 학생들은 재학 중에 약 2번이상은 교수와의 면담기회가 있다고 추정된다.

전문대생에 대한 기술통계에서 취업/창업에 대비한 훈련이 그다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며 자격증도 의료분야에 집중되어 다른 분야에서는 그다지 효용성이 떨어지고 있

다. 입사시험에서 비중있게 다루어지고 있는 영어에 대한 교육이 아직까지 미흡함을 보여주
고 있다. 전문대 교육과정은 현장 맞춤형의 실무교육을 표방하고 있다. 하지만,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자격증이나 취업/창업에 대비하는 교육훈련 그리고 영어교육이 상당히 미
흡하여 전문대학에서 받은 교육을 현실에 활용하는 데 미흡하다.

나. 변수의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

대학교육만족도와 직장만족도의 신뢰도(Cronbach α) 계수가 .70을 상회하여 내적 일관성
을 나타내고 있다.

2. 가설 검증

가. 상관관계분석

〈표 2〉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변수	(1)	(2)	(3)	(4)	(5)	(6)	(7)	(8)	(8)	(9)	(10)	(11)	(12)	(13)	(14)	(15)
(1)																
(2)	-.212															
(3)	-.254	-.192														
(4)	-.403	-.304	-.364													
(5)	-.166	-.126	-.150	-.238												
(6)	.270	-.169	.095	-.285	.164											
(7)	-.187	-.245	.023	.363	-.078	-.107										
(8)	-.225	.099	.022	.171	-.112	-.100	.204									
(8)	.029	.105	.061	-.143	-.011	-.113	.165									
(9)	-.115	-.022	.066	.005	.094	-.084	.102	.025	.101							
(10)	.032	.036	.034	-.173	.156	.076	-.128	-.049	-.089	.021						
(11)	-.015	-.036	.136	-.011	-.102	.045	.015	.008	-.145	-.023	-.019					
(12)	.107	-.091	.239	-.190	-.051	.198	.026	-.177	.070	.041	.025	-.009				
(13)	.035	.013	.116	-.143	.016	.112	-.113	-.085	.158	-.120	.103	.101	.095			
(14)	-.051	.138	-.052	-.004	-.015	-.139	.191	.069	.142	.332	.145	.067	-.111	.019		
(15)	-.102	.063	-.173	.205	-.037	-.316	.289	.194	.078	.175	.007	-.145	-.136	-.092	.140	

N=123

주: 1) $r > .180, p < .05$; $r > .300, p < .01$; $r > .304, p < .001$ (양측검정)

- 2) (1) 인문사회계열 (2) 교육계열 (3) 자연공학계열 (4) 의약계열 (5) 예체능계열 (6) 학교소재지 (7) 임금 (8) 정규
직 유무 (8) 대학성적 (9) 대학만족도 (10) 취업준비경험 (11) 취업/창업 대비한 교육훈련 (12) 영어교육 유무 (13)
자격증 개수 (14) 전반적인 직장만족도 (15) 자신의 교육과 기술수준과 비교하여 느끼는 직장만족도

변수가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표 2>에서 대학생활 만족도는 전반적인 직장만족도($r = .332$; $p < .01$)와 자신의 교육/기술수준과 비교하여 느끼는 직장만족도($r = .175$; $p < .05$)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지닌다고 검증되었다. 대학성적과 구직활동은 대학생활 만족도에 아
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학교의 수도권 소재여부에 따라 영어교육유무($r = .198$; p

<.05)와 자신의 교육/기술수준과 비교하여 느끼는 직장만족도($r = -.316$; $p < .01$)가 달라진다. 학교가 수도권에 소재해 있으면 영어교육을 받을 기회가 많아지며 자신의 교육수준에 비하여 직장의 업무수준이 낮다고 느낀다. 타 분야와 비교하여 의약계열이 임금($r = .363$; $p < .01$)이 월등히 높으며 자신의 교육/기술수준과 비교하여 느끼는 직장만족도($r = .205$; $p < .05$) 또한 높은 수준에 속한다. 하지만, 의약계열은 영어교육유무와 부정적인 상관관계($r = -.190$; $p < .05$)를 나타내 의약계열 전문대 졸업생들은 전공교육에만 몰두하고 있다.

상관관계분석결과 대학생들의 만족도는 신입사원의 직장생활 만족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학교의 수도권 소재 여부에 따라 특히, 자신의 교육수준에 비교한 직장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달라지므로 수도권소재 여부가 직장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의약계열에 종사하는 전문대 졸업생의 직장 처우수준과 만족도가 월등히 높으며 의약분야에서 요구하는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하여 연마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나. 위계적 회귀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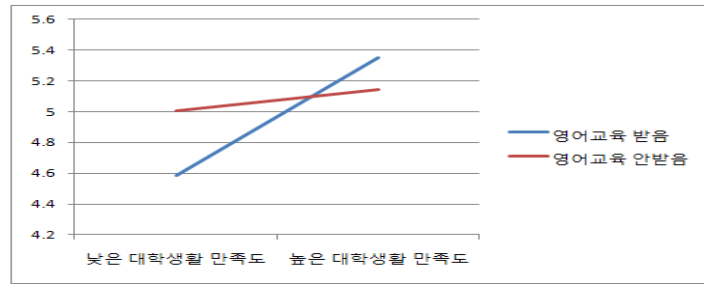
〈표 3〉 직장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위계적 회귀분석결과^a

독립변수들	전반적인 직장만족도			자신의 교육/기술수준과 비교한 직장만족도		
상수	.886 (1.342)	.459 (1.320)	.280 (1.334)	.537 (.997)	.623 (1.009)	.951 (1.030)
인문사회계열	.126 (.170)	.159 (.168)	.186 (.174)	.037 (.126)	.014 (.128)	.044 (.135)
교육계열	.333+ (.188)	.342+ (.186)	.263 (.194)	.062 (.140)	.031 (.142)	.010 (.150)
자연공학계열	-.028 (.164)	.019 (.165)	-.082 (.169)	-.189 (.122)	-.202 (.126)	-.168 (.131)
예체능계열	.036 (.219)	.001 (.216)	-.074 (.220)	.015 (.162)	-.011 (.165)	.012 (.170)
대학 소재지	-.108 (.125)	-.067 (.124)	-.064 (.127)	-.262** (.093)	-.257** (.095)	-.294** (.098)
직장임금	.501+ (.275)	.591* (.270)	.622* (.274)	.528** (.204)	.517** (.207)	.450** (.211)
정규직 유무	.038 (.164)	.013 (.162)	.037 (.165)	.169 (.122)	.156 (.124)	.173 (.128)
대학성적	.362 (.572)	.579 (.587)	1.000 (.746)	.037 (.425)	.036 (.449)	.006 (.576)
대학생활만족도	.403*** (.111)	.404*** (.110)	.246+ (.132)	.139+ (.083)	.152+ (.084)	.209* (.102)
취업준비경험		.041 (.032)	.030 (.033)		.014 (.024)	.010 (.025)
취업/창업 교육훈련		.494* (.200)	.334 (.309)		-.259+ (.153)	.017 (.239)
영어교육유무		-.109 (.110)	-.062 (.128)		-.038 (.076)	-.076 (.099)
자격증 개수		.058 (.072)	.013 (.098)		-.002 (.055)	-.058 (.0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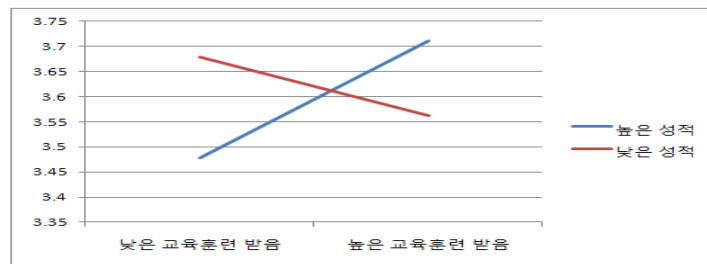
독립변수들	전반적인 직장만족도			자신의 교육/기술수준과 비교한 직장만족도		
대학성적 * 취업준비경험	-.044 (.263)			.030 (.203)		
대학성적 * 취업/창업 교육훈련	-2.433 (2.289)			3.045+ (1.768)		
대학성적 * 영어교육유무	-1.388 (1.440)			.732 (1.112)		
대학성적 * 자격증 개수	1.546 (.957)			.980 (.739)		
대학생활만족도 * 취업준비경험	-.015 (.066)			.045 (.051)		
대학생활만족도 * 취업/창업 교육훈련	-.909 (.769)			.166 (.594)		
대학생활만족도 * 영어교육유무	.536* (.242)			-.288 (.187)		
대학생활만족도 * 자격증 개수	-.126 (.167)			.065 (.129)		
수정된 R 제곱	.176	.246	.324	.163	.159	.171
Model F	3.040**	2.985***	2.436**	3.831***	9.863***	2.195***

^a N=123, [†] p<0.10, * p<0.05, ** p<0.01, *** p<0.001, ^b 더미변수
표준화계수가 제시됨. 계수 유의성 검정은 양측검정임. 괄호 안 계수는 표준오차임

통제변수인 전공계열, 학교 수도권 소재지 여부, 월평균 임금, 그리고 독립변수인 대학생활 만족도와 대학성적을 투입한 I 단계에서는 대학생활 만족도는 직장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전반적인 직장만족도: $\beta = .403, p < .01$; 자신의 교육/기술수준과 비교하여 느끼는 직장만족도: $\beta = .139, p < .10$). 반면 대학성적은 직장만족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전반적인 직장만족도: $\beta = .362, p > .10$; 자신의 교육/기술수준과 비교하여 느끼는 직장만족도: $\beta = .037, p > .10$). 조절변수를 투입한 II 단계에서는 취업/창업에 대비한 교육훈련은 전반적인 직장만족도에는 긍정적인($\beta = .494, p < .01$) 하지만 자신의 교육/기술수준과 비교하여 느끼는 직장만족도에는 근소하게 부정적인($\beta = -.259, p < .10$)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취업/창업 대비한 교육훈련과 자격증 습득은 직장생활에 상당한 도움을 주지만 다른 한편으로 자신의 업무내용에 불만족을 갖게하는 이중적 측면을 띤다고 검증되었다.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을 검증한 III단계에서는 대학생활만족도와 영어교육유무는 긍정적인($\beta = .536, p < .05$) 대학성적과 취업/창업교육훈련계수 또한 근소하나마 긍정적인 상호작용($\beta = 3.045, p < .10$) 을 하고 있다.



[그림 2] 대학생학 만족도와 영어교육 유무



[그림 3] 대학생학 성과와 교육훈련정도

[그림 2], [그림 3]은 <표 3>의 회귀분석에서 나타난 각각의 조절효과를 명확하게 보여 주기 위해 그림으로 도시한 것이다. [그림 2]에서 영어교육을 받은 전문대 졸업 근로자들은 영어교육을 안 받은 전문대 졸업 근로자보다 대학생학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경우 대학생학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경우와 비교하여 직장만족도가 급격하게 상승한다. 대학생학에 만족도가 낮은 수준일 때 영어교육을 안 받은 전문대 졸업 근로자들의 직무만족도가 영어교육을 받은 전문대 졸업 근로자들보다 높은 수준에 있다. [그림 3]에서는 취업/창업 교육훈련을 많이 받은 전문대 졸업 근로자들의 성적이 높으면 낮을 때와 비교하여 직장만족도가 상승된다. 반면 취업/창업 교육훈련을 적게 받은 전문대 졸업 근로자들의 성적이 낮으면 높은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직장만족도가 높은 수준에 도달한다. 따라서 전문대 졸업 근로자들의 전반적인 직장만족도가 상승하려면 대학생학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면서 대학시절 영어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어야 한다. 자신의 교육 및 기술수준과 비교하여 직장만족도가 상승되려면 대학시절 성적이 우수하면서 취업/창업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회귀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대학생학만족도는 직장만족도를 상승시키므로 가설 1-1을 지지하고 있다. 영어교육유무는 대학생학만족도와 취업/창업교육훈련개수는 대학성과와 상호작용하므로 부분적인 조절효과를 나타내어 가설 2-1과 가설 2-2를 부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전문대생들이 졸업하여 취업하는 데 있어서 대학생학은 상당히 중요하며 취업에 대한 서비스 또한 상당히 중요하다고 검증되었다. 따라서 전문대학은 대학교육과정이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구축할 뿐만 아니라 구직활동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또한 제공하여야 한다.

〈표 4〉 직장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위계적 회귀분석결과 (여성대학교 졸업생)

독립변수들	직장만족도			자신의 교육/기술수준과 비교한 직장만족도		
상수	3.780*** (.834)	3.599 (.832)	3.873 (.874)	3.312 (.690)	3.294 (.716)	3.470 (.716)
인문사회계열	-.026 (.160)	-.028 (.172)	-.024 (.179)	-.109 (.133)	-.090 (.145)	-.067 (.146)
교육계열	.136+ (.185)	.090 (.246)	.102 (.250)	.059 (.202)	.063 (.207)	.110 (.204)
자연공학계열	-.028 (.164)	.114 (.196)	.066 (.206)	-.164 (.153)	-.144 (.165)	-.122 (.168)
의약계열	.022 (.283)	.037 (.288)	.008 (.294)	-.117 (.234)	-.107 (.242)	-.146 (.240)
대학 소재지	.007 (.167)	-.021 (.169)	.021 (.181)	.022 (.138)	.022 (.142)	.009 (.148)
직장임금	-.107 (.189)	-.058 (.195)	-.124 (.200)	-.028 (.156)	-.024 (.164)	-.065 (.163)
정규직 유무	.089 (.130)	.051 (.137)	.064 (.141)	.099 (.107)	.099 (.115)	.136 (.115)
대학성적	-.684 (.791)	-.610 (.818)	-.958 (1.203)	.788 (.655)	.847 (.687)	-.236 (.985)
대학생활만족도	.359** (.132)	.415** (.137)	.468* (.195)	.149 (.110)	.144 (.115)	.377 (.160)
취업준비경험		.080 (.053)	.031 (.059)		.001 (.044)	-.018 (.048)
취업/창업 교육훈련		-.069 (.140)	.078 (.191)		-.006 (.117)	-.184 (.156)
영어교육유무		-.022 (.096)	.019 (.114)		-.023 (.081)	-.020 (.094)
자격증 개수		.084 (.085)	.170 (.132)		-.026 (.072)	.019 (.108)
대학성적 * 취업준비경험			-1.483 (.913)			-.915 (.747)
대학성적 * 취업/창업 교육훈련			-2.030 (1.636)			3.340* (1.339)
대학성적 * 영어교육유무			.433 (1.221)			.714 (.999)
대학성적 * 자격증 개수			-.075 (1.547)			-1.445 (1.266)
대학생활만족도 * 취업준비경험			.081 (.167)			.089 (.137)
대학생활만족도 * 취업/창업 교육훈련			-1.440 (1.023)			-.494 (.837)
대학생활만족도 * 영어교육유무			-.139 (.215)			-.354 (.176)
대학생활만족도 * 자격증 개수			.086 (.235)			.115 (.193)
수정된 R 제곱	.003	-.004	-.019	-.008	-.047	-.008
Model F	1.032	.966	.900	.899	.618	.958

추가로 전문대생의 대학생활과 직장생활의 연계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대학교 졸업생들과 비교해 보았다. 여성대학교졸업생들에 대하여 여성전문대졸업생들에게 분석되었던 연구모형을 동일하게 분석한 결과 여성대학교졸업생들의 대학생활과 직장생활은 별다른 관계가 없으며 취업준비활동 또한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전문대 졸업생들에게 대학교육이 그들의 경력을 개발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처럼 전문대학생들에게 대학교육은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한국사회가 전문대학교육에 보다 많은 투자와 관심을 쏟아야겠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전문대 졸업 여성근로자의 직장만족도를 그들의 대학생활과 연계지어 종단적으로 분석하여 그들의 대학생활이 삶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우선 전문대생의 대학생활 만족도는 직장생활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대학입시철이 되면 대학교에 대한 정보를 분석한 기사가 물밀듯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반면 전문대학에 대한 기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전문대학생이 학교에서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하고 연마한다면 양극화가 심화되어 가는 시점에서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전문대학이 이렇듯 빈익빈 부익부를 완화시키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사회는 무관심으로 일관할 따름이다. 현 연구에서 전문대학교육은 직장생활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고 검증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사회는 전문대학교육과정이 내실 있게 운영되어 산업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겠다.

두 번째로 전문대학은 현장맞춤형의 실무형 인재양성을 지향하는 교육기관이다. 따라서, 취업이 교육기관의 우선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취업서비스가 그다지 효과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취업정보검색여부와 방문부탁을 경험한 학생비율이 높게 나타나 학교나 사회에서 제공하는 취업준비프로그램 경험이 적은 편에 속한다. 특히 워크넷 검색 여부는 5% 고용안정센터 상담여부는 7%로 사설취업사이트 41%와 비교하여 국가기관의 취업관련 서비스 이용률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취업프로그램 효과성으로 분석해보면 자격증 취득과 직업훈련 그리고 학교지원서비스가 구직자에게 매우 효과적으로 분석되었다. 그럼에도 직업훈련경험은 13% 자격증 취득은 21% 학교지원서비스이용은 14%에 머물러 이용률이 매우 낮은 수준에 속한다. 사실 대부분의 전문대학은 대학교와 비교하여 재정적 기반이 취약하여 교육투자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한국정부가 나서서 전문대학 교육의 질적 향상에 투자하여 실무형 교육프로그램 구축에 힘을 써야 한다.

세 번째로 영어능력이 취업의 질을 좌우하는 요소임에도 전문대생의 영어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영어교육을 받은 학생은 36.6%이며 TOEIC 응시여부가 단지 11명이며 최고점이 650점이라는 통계결과는 비록 다른 학생들이 응답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

안하여도 상당히 낮은 수치이다. 특히 인문계열에서는 영어능력이 상당히 중시되고 있는 시점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수도권 소재지 여부에 따라 영어교육이 유의미하게 다르다는 점은 지방 권에서는 사실상 영어교육이 방치되어 있다($r = .198, p < .05$). 공단이 지방 곳곳에 소재하고 있는 점을 생각해보면 지방소재 전문대 생에게도 영어교육이 시급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영어교육여부는 대학생활의 만족도와 맞물려서 직장생활만족도를 높이는데 유의미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요즘 열풍처럼 유행하고 있는 스펙에 TOEIC이 포함되어 있으며 많은 대학생들은 TOEIC점수뿐만이 아니라 영어실력을 높이고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물론 영어실력을 높이려는 노력을 긍정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취업전선에서 영어실력이 필수인 현 시점을 감안해 볼 때 전문대 생에 대한 영어교육을 확대시켜야 한다.

네 번째로 취업/창업 교육훈련은 직장만족도에 미묘한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전반적인 직장만족도는 높고 있지만 자신의 교육수준과 기술수준과 비교하여 느끼는 만족도는 떨어지고 있다. 특히, 취업/창업 교육훈련은 성적과 상호작용하여 교육/기술수준과 비교하여 느끼는 직장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럼에도 취업/창업훈련은 전문대학이 지향하는 실무형 인재양성과 부합되므로 앞으로 꾸준히 장려되어야 한다. 하지만, 취업/창업훈련의 현황을 분석해보면 상당히 적으며 사설학원 중심으로 이루어져 빈곤계층에 다가가기 힘들다. 자격증 또한 의료분야에 치우쳐져 있어서 실무형 인재양성이라는 취지가 무색하다. 여러 신문기사에서도 대학교와 비교하여 전문대학에 대한 투자가 미흡함을 호소하고 있다. 전문대학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해내려면 취업/창업 교육훈련 그리고 자격증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수용하여야 한다. 전문대학이 대학교의 '이중대' 혹은 빈곤계층의 어쩔 수 없는 '차선택'이 아닌 현장인재를 양성해내는 교육기관으로 거듭나는 노력이 필요하다(김주성, 2010). 대학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전공과 연계된 근로경험은 대학생의 취업률을 높여준다고 분석되었다(이병훈, 2003; 채창균, 2003). 이렇듯 빈곤한 현실을 타개하려면 전문대학은 현장과 연계될 수 있는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이러한 프로그램은 취업/창업/자격증 등의 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술/역량과 연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 연구는 여성전문대생의 개인특성에 따라 대학생활이 유의미하게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우선, 현 연구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학교 소재지가 수도권인 여자전문대 졸업생들은 자신의 기술수준에 비하여 업무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다($\beta = -.262, p < .01$). 또한, 수도권 여자전문대 졸업생들의 영어교육기회가 지방전문대생들과 비교하여 상당히 많이 주어지고 있다($r = .198, p < .05$). 인문계열 여성전문대졸업생들이 임시직으로 취업할 확률이 높으며($r = -.225, p < .05$) 임금도 낮은 수준에 속한다($r = -.245, p < .001$). 교육계열의 임금 또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나($r = -.245, p < .01$) 의약계열의 임금은 높은 수준에 속한다($r = .363, p < .001$). 앞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든다는 현상을 고려해보면 전문대학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인문계열 여성전문대 졸업생들의 취업현황을 집계하여 구조조정에 대한 대안마련이 시급하다. 즉, 임시직 취업이 이들의 경력개발에 도움이 되는 지 아니면 임시방편으로 빈곤의 악순환에 빠지고 있는 지 면밀하게 조사하여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면 인문사회계열 중심으로 과감하게 실행하여야 한다. 또한, 전문대 생만으로 국한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음에도 수도권/비수도권 그리고 전공에 따라 대학생활과 직장생활에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 사회의 극심한 양극화 현상을 어느 정도 반영해주고 있으며 이를 타개할 대안이 모색되어야겠다.

현 연구는 전문대학생의 졸업 후 직장생활에 대한 연구를 하여 현재 한국사회에서 점점 소외되어가는 전문대학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자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몇 가지 한계점이 아쉽다. 우선 교육고용패널에서 남성들 대부분이 군복무를 하여 표본이 여성으로만 구성되었다. 상당수의 졸업생들이 의약계열 졸업으로 의약분야에 종사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는 여학생의 특성을 반영해 주고 있다. 앞으로 몇 년 후 군 제대 후 남학생들을 포함시켜 현 연구표본을 분석하여야한다. 표본크기가 123명 정도인 점이 아쉽다. 남학생들을 포함시키지 못한 부분과 더불어 종단연구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종속변수인 직장만족도는 2009년도에 조사된 반면 대학생활만족도와 구직활동은 2007년과 2008년에 조사된 설문자료를 활용하였다. 통제변수와 독립변수인 대학생활만족도와 대학성적이 직장생활만족도를 설명하는 부분이 .176, .163이므로 종단연구임을 고려한다면 상당한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전문대 생들에게 대학생활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으므로 전문대학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한국사회는 양극화 극복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각 정당 간에 “복지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방대한 예산을 대학교에 투자하여 연구능력 함양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예산은 학자들간의 경쟁을 과열시켜 연구윤리가 무시되며 불필요한 논문이 무의미하게 양산되는 부작용이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다. 전문대학교육의 내실화는 논문편수 과당경쟁을 유발하는 고등교육투자의 일부만을 전용하여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전문대학생은 대학입학의 4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학생은 전체 대학생의 24.7%에 다다르고 있음에도 전체 고등교육 예산의 7.7%에 불과한 2,724억원의 지원만을 받고 있다(김주성, 2010). 많은 전문가들은 “복지경쟁” 와중에 무임승차의 팽배와 국가재정의 파탄을 우려하고 있다. 전문대학에 대한 투자는 전문대 입학생들의 상당수가 사회적 약자라는 측면에서 빈곤계층의 탈출을 돕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현 연구는 전문대학이 표방하는 현장중심교육에 전문대학의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 분석하여 전문대학의 교육이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비록 표본이 여성으로 제한된 아쉬움이 있음에도 전문대학을 주제로 한 연구를 발표하여 청년취업에 대한 관심이 사회 각 층에 높은 시점에서 사회적 약자에 속한 청년 계층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였다. 앞으로 현 연구를 계기로 전문대학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어 전문대학 교육이 표방하는 현장맞춤형/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

- 김병숙·박현주(2007), “전문대학생의 직업가치에 따른 직업정보요구도 분석,” 진로교육연구, 20(2),149-171.
- 김병숙·정태욱(2005), “전문대학생의 취업효능감 증진 프로그램 효과 분석,” 진로교육연구, 18(1),99-118.
- 김주성 (2010.10.20), “취업이 경쟁력인 시대...전문대의 현장중심교육 더 강화해야”, 한국일보
- 최성욱 (2010.11.15), “현장중심 ‘직업교육’ 강화 마이스터대학으로 특성 살린다”, 교수신문
- 박일근 (2008.11.9), “취업난? 기술인력은 부족해!”, 한국일보
- 박성재·반정호(2006), “대졸 청년층 취업준비노력의 실태와 성과,” 한국인구학, 29(3),29-50.
- 박재민·엄미정·김윤영(2010), “전공-직업 일치의 장기적 노동시장 성과에 관한 연구,” 직업능력개발연구, 13(2),1-20.
- 박천수(2009), “대학생의 해외 어학연수가 노동시장 이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직업능력개발연구, 12(1),117-139.
- 박천수(2010), “대학생의 자격취득이 노동시장 이행에 미치는 영향,” 직업능력개발연구, 13(2):91-110.
- 오성욱·이승구(2009), “대학생의 직업가치 유형이 직무적합도 및 첫 직장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2(2),1-19.
- 이기종·김은주(2006), “취업 및 미취업을 결정하는 요인 탐색,” 교육논총, 26(1),17-37.
- 이병훈(2003), “재학 중 근로경험의 실태와 노동시장 성과,” 노동경제논집, 26(1),1-22.
- 이병훈·김주섭·안주엽·정진호·남기곤·류장수·장수명·최강식(2005). 「교육과 노동시장 연구」, 서울 : 한국노동연구원.
- 정태영·이기엽(2005), “대졸자 취업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학점이 취업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경영교육연구, 8(2),159-182.
- 채창균(2003), “대학생의 재학 중 일자리 체험과 취업준비,” 직업교육연구, 22(1):169-184.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KOSIS), <http://kosis.nso.go.kr>
- 황여정·백병부(2008),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 결정요인,” 직업능력개발연구, 11(2):1-23.

❖ Abstract ❖

Women College Students and Job Satisfaction
- Moderating Roles of Job Search Behaviors -

Hyondong Kim

This study analyzes educational panel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life and job satisfaction of women college graduates. Higher college satisfaction increases job satisfaction of college students. Job training programs increase job satisfaction. However, job satisfaction relative to her competency becomes lower when they are job training programs. Moreover, English study and the number of job training programs positively affect the effect of college satisfaction on job satisfaction of women college graduates. Thus, although there are conflicting aspects, job training programs contribute to the job satisfaction. The results of the study suggest that college life positively affects their job experiences. However, Korean society neglects the importance of college relative to university. Thus, Korean society exerts efforts toward enhancing the quality of college education.